부처님 가르침 받들어 중생구제 나서자

평화와 행복은 내면서부터 시작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娑婆世界)에 나투신 경이(驚異)와 찬탄(讚嘆)과 환희(歡喜)의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일곱 걸음을 걸으신 후, 한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天上天下 唯我獨尊)의 일성(一聲)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만천하(滿天下)에 본래부처를 선언(宣言)하심이요, 생명의 존엄(尊嚴)과 천부적(天賦的) 자유를 내보이시어 일체의 중생들을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고통에서 구제(救濟)하고, 본래의 성품인 참나를 밝혀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시현(示現)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자(佛子)들이 연등(燃燈)을 밝혀 부처님을 맞이하는 이 수승(殊勝)한 인연(因緣)이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대신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가 국민통합으로 회향(回向)하는 공덕(功德)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70년의 분단(分斷)과 대치(對峙)가 대화와 화해를 넘어 평화와 통일로 전환하는 시기가 도래(到來)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佛敎)는 1,700년간 우리 민족정신문화의 근간(根幹)이었기에 우리 남북한 민족의 유전자에는 불교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우리 모두가 참선수행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불신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은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시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眞理)를 알고자 할진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話頭)를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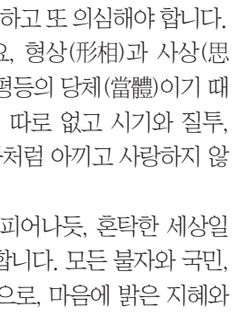
참나는 모든 생명(生命)의 근원이요, 형상(形相)과 사상(思想)의 갈등을 넘어선 상호이해와 자유평등의 당체(當體)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세계에는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시기와 질투, 갈등과 대립이 없으니, 어찌 남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진흙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혼탁한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불자와 국민, 그리고 온 인류가 참나를 밝히는 수행으로, 마음에 밝은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만인(萬人)에게 진리(眞理)의 한 마디를 선사(膳賜)하겠습니다.

장안만리천만호 (長安萬里千萬戶)에
고문처처진석가(鼓門處處眞釋迦)라
마음의 고향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니
이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저집에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나오시도다.
이러한 좋은 부처님의 진리를 다 같이 잘 받들어 행합시다.

착한 인연 부지런히 짓자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밖을 보면 법신(法身)부처님이요, 안을 보면 자성(自性)부처님이라 했습니다. 맑고 밝은 눈과 참되고 바른 마음으로 심인(心印)을 깨칩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삼밀(三密)을 실천합시다.

오고가는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이 평범한 일상의 진리를 일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서남북이 본래부터 구분 없으며 안팎과 위아래는 분별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강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강에서 바다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자의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이니 심인을 밝히고 삼밀을 실천함으로써 평상심을 회복해 불법을 바로 세우면 세간법은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오고가는 눈앞의 현상에 집착 말고 이날을 봉축(奉祝)합시다. 본성(本性)을 찾아 자성(自性)을 회복합시다. 철마다 피었다 지고 다시 피는 꽃이라도 꽃의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세세생생 돌려나는 것이니 바르고 착한 인연을 부지런히 지어야 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일구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우리는 본래 마음속에 참 생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평화롭고 안락하게 만들 수 있는 무한 가능의 존재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참 생명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유일한 해탈의 삶이며 열반의 길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이런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날이며, 지혜와 자비가 구족한 청정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서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순수 무구한 지혜가 있음을 알고 자신을 바로 보며 아낌없이 자비를 실천할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 질 것입니다. 세계일화의 꽃을 피워내겠다는 간절한 다짐으로 불자들은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직 불교를 접하지 않은 국민 여러분들도 하루 한번 소박하게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지혜를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 만물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만유일체(萬有一體) 정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보듬어 감싸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일구는 것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면 사회적 동체대비의 실천은 정의로운 분배에 있습니다. 소외가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청년 일자리와 노인의 인권, 여성과 다문화 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강인하게 하고 자비가 우리를 따사롭게 할 것입니다.

세계평화 판문점선언서 시작되길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세계평화는 판문점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발원합니다.'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민족에게 이렇게 감격적일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오신날을 그 어느 때 보다 더 의의 있게 봉축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에 희망의 새 소식이 전해져서, 세계평화는 한반도의 한민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판문점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고종의 4천 사암의 주지 교임 전법사와 1만 종도(승니)와 3백만 교도들은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일궈낸 '판문점 선언'을 환영지지합니다. 조국강산과 한 겨레가 두 동강이 난 비극의 시대가 끝나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민족화합과 발전을 이룩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민족사의 역사적 성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에 우리 태고종도는 일심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판문점 선언의 실현'에 특별 기도를 올려서 필히 성취되기를 발원합시다.

태고종도는 지극정성을 다하여 판문점선언의 실현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세계평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민족의 위대한 역량과 기량을 발휘하여 세계에서 일류국민이 되도록 부처님께 기도하고 발원합시다.

자타일시 성불도의 길로 나아가자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셨으니, 보이는 모든 것이 청정법신이요, 들리는 모든 소리는 가릉빈가의 묘음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곳곳이 연화정토여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후 울려 퍼지니 육근이 정토이고 칠정이 보리임을 찬탄합시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금 이 땅은 평화의 기운이 넘실거리고 화해와 공존 번영의 서광이 높게 비치고 있습니다. 대립과 반목 그리고 군사적 긴장을 조금씩 풀어내며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이 하나로 돌아가는 오랜 염원의 성취가 싹터 오르니 이야말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무량가피입니다. 산하대지를 무성하게 뒤덮는 푸른 녹음처럼 평화와 화합의 기운이 금수강산을 두루 덮어서 집집마다 웃음소리 나고 마을마다 풍악소리 드높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억겁 번뇌를 녹여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니, 우리가 바로 극락의 주인이요 정토의 백성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생사가 열반의 자리요 번뇌가 곧 보리의 자리임을 사무쳐 깨달아 자타일시 성불도의 큰 길로 나아갑시다.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한 정진을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닙니다. 지혜로움에서 자비가 움트고 자비로움에서 지혜가 솟아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자비로운 마음씨, 말씨, 맵시가 저절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본심을 좇아서 지혜롭게 살고 자비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곳에 평화가 깃듭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해 한반도에도 '평화, 새로운 시작'의 막이 올랐습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감동적인 서막이었습니다. 주변국 정상들의 연쇄 대화국면으로 이어지면서 평화협력의 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고 번영과 상생의 새 시대가 열리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굳게 하고 정진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와 지혜광명으로 국가와 사회, 인류에 평화가 깃들도록 우리도 부처님같이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합시다.

큰 가르침으로 지혜 찾아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괴로움, 세상의 고통을 없애 능히 편안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성(一聲)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吾當安之)입니다. 그러면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평생을 설법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이 평생하신 설법의 핵심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고통을 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괴로운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들 모두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일깨워주신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오늘은 황면금선(黃面金仙)께서 하강하신 날입니다. 삼천리금수강산(三千里錦繡江山)에 평화의 소식이 오니, 판문(板門) 도량에서 방광하는 빛은 온 우주를 감싸고 남습니다.

세존께서 처음 탄생하실 때, 두루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시며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론 땅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나만이 홀로존귀하도다."

이에 백운병(白雲昺)이 송하기를 "무수(無憂樹) 밑에 거룩한 몸 나시어 일곱 걸음 걸으시니 일이 아주 새로웠네. 서로 만나 제각기 새벽길을 나섰다 하나 간밤부터 나선 사람 있는 줄 모르는가?"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좋은 소식이 오고, 우리 불교에도 밝은 빛이 도래해서 남과 북이 본래 하나 되고 한민족이 세계불교를 견인해 가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도록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하루아침에 근심을 해결하여 금강보좌에 앉으셔서 일체중생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모두 우러러 성인의 탄신을 축하하는 등불을 밝힙시다.

한마음 즐거우면 그곳이 천상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찬란한 빛이 누리에 가득하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지혜로써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바른 몸가짐으로 세상을 장엄하라.

한마음 즐거우면 그 자리가 천상이요 성내는 한 순간에 지옥이 전개되네. 한 생각 청정하니 참다운 불제자요 바르게 깨달으면 성불세계 이어지네.

시련과 고통은 진정한 나의 스승이니 진리를 존중하고 진실을 따르라. 게으르지 말고 성실히 일할 것이며 재보를 축적하기보다 가진 복을 나누어라.

행복은 위대한 버림 속에 있느니 즐거움을 만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도 근심을 더하지 않으며 다툼이 없는 가운데 진정한 평온을 누리라. 부처님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으며 지극한 정성에 무량한 복이 함께 하리라.

한 가르침이라도 열심히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 오늘은 참으로 거룩하고 기쁜 날입니다. 고통과 어리석음에 허덕이는 무명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 땅, 사바세계에 사람의 몸으로 나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고통과 어리석음을 걷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팔만 사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거룩하고 고귀한 부처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이 땅에 오신 뜻을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불자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여의고 밝고 맑은 마음을 가지며, 자리(自利)를 넘어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며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신심과 끊임없는 용맹정진으로 실천해나갑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의 법문을 다 안다고 하여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바른 신심이라 할 수 없고 바른 정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천이 따르는 신심과 정진이 있어야 바른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정도(正道)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일심으로 정진토록 합시다. 일체의 번뇌와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